

# 중국의 인력자원 발전현황과 육성 전략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

1. 중국의 인력자원 발전 현황
2. 중국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장애요소
3. 인력자원 강국의 전략과 전망

## 주요 내용 ●●●

-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인력자원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교육·건강·도시화 수준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짐.
  - 초·중·고 교육부문의 진학률이 증가를 보이며 대규모 농민의 도시유입현상 역시 존재함.
  - 평균수명과 연령 단계별 사망률을 보면 중국 인력자원의 건강수준은 이미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함.
- 현대적 시장경제 메커니즘하에서 중국은 인력자원 개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간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인력자원 강국 건설에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행정적 독점하의 교육공급의 부족,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연관성 상실, 재정적 어려움 및 사회역량의 발전동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을 들 수 있음.
  - 또한 시장체제 구성을 위한 우수한 자원배치를 위하여 호적(戶口)제도와 의료시장 개선이 문제시되고 있음.
-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중점전략은 △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 △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 △ 인력자원의 사회보장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할 방침임.
  - 인구변화와 산업구조변화 및 제도적 결함 등 문제를 고려하여 인력자원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지속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인력자원의 수준을 △ 2020년까지 저개발국가 중 선도적 지위를 점하게 높이고 △ 2030년까지 중진국의 대열 진입 및 중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며 △ 204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임.

## 1. 중국의 인력자원 발전 현황

■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기초교육은 ‘9년 의무교육 ·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 · 취학 전 교육의 확대’를 목표로 발전해왔음.

- 1978~2009년 기간 초·중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학연령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1980년대 초기를 제외하고 상승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입학률은 100%에 근접함(그림 1 참고).
-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87.7%(1978)에서 66.2%(1984)로 하락하였으나 99.1%(2009)로 다시 상승함(그림 1 참고).
-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률도 1981년은 31.5%로 가장 낮았으나 48.8%(1996), 85.6%(2009)로 상승함(그림 1 참고).

그림 1. 1978~2009년 중국 기초교육의  
진(입)학률 변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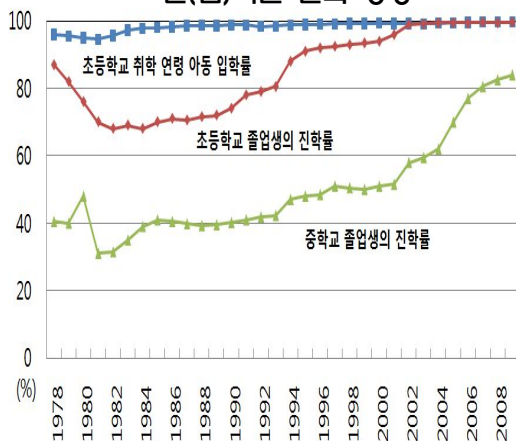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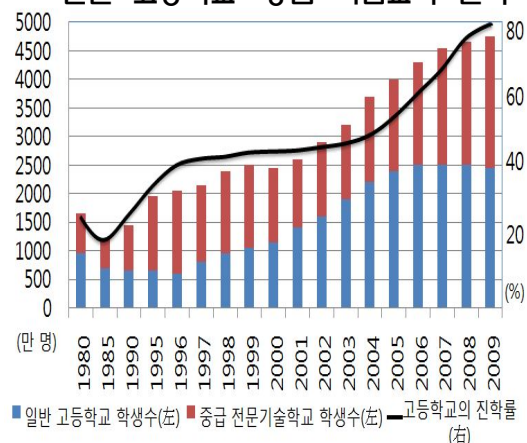


그림 2. 1980~2009년 중급교육단계의  
일반 고등학교 · 중급 직업교육 진학



자료: 『“应试教育四大危机: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最大困境”(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1995~98년 기간 중급 전문기술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약 6 : 4로 중급 전문기술학교 재학생의 수가 많았으나, 1998년 ‘학생모집 확대’ 후 2000~05년 기간 중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더욱 증가하여 60% 이상을 차지함(그림 2 참고).

- 1990~2009년 기간 중 전체 고등학교 단계의 진학률은 25.3%에서 79.2%로 상승함(그림 2 참고).

■ 1998년부터 시작된 ‘학생모집 확대’ 이후 10년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sup>1)</sup>’은 46.1%에서 72.7%로 상승됨(그림 3 참고).

- 같은 기간 ‘고등교육 진학률<sup>2)</sup>’은 9.8%에서 23.3%로 상승함(그림 3 참고).

그림 3. 1990~2009년 고등교육 진학률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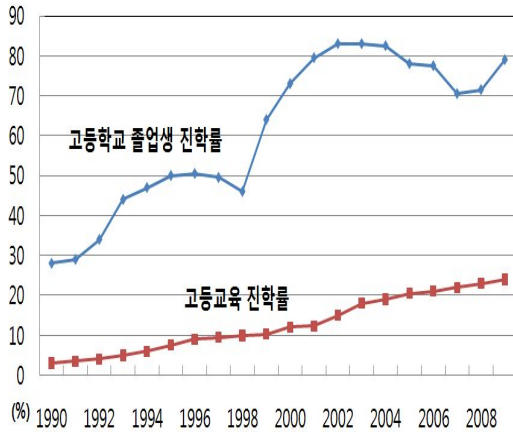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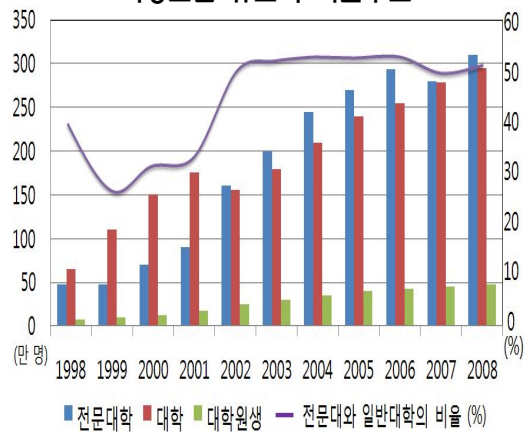


그림 4. 1998~2008년 고등교육부문의  
학생모집 규모와 비율구조



자료: 『应试教育四大危机: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最大困境』(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고등교육기관의 확대모집 이후 전문대학의 학생모집 규모는 일반대학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10% 이상 증가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그림 4 참고).
- 이와 동시에 대학원생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7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증가하였음(그림 4 참고).

■ 1996~2000년 기간 중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등 여러 요인으로 중국이 전략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실직노동자’와 ‘양극화(两极分化)’가 발생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의 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규모 ‘농민의 도시유입현상(民工潮)’이 다시 발생하였음.

-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농업의 잉여노동력 수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1991년 약 1.66억 명으로 최고점에 달하고 2008년에는 6,800만 명으로 하락함(그림 5 참고).
- 농업부문 잉여노동력이 전국의 취업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7년 이후 30%의 높은 비중을 보인 적도 있으나 현재는 약 10%를 차지함(그림 5 참고).

■ 인구수명의 예측과 각 연령단계별 사망률 지표를 보면 중국의 인력자원 수준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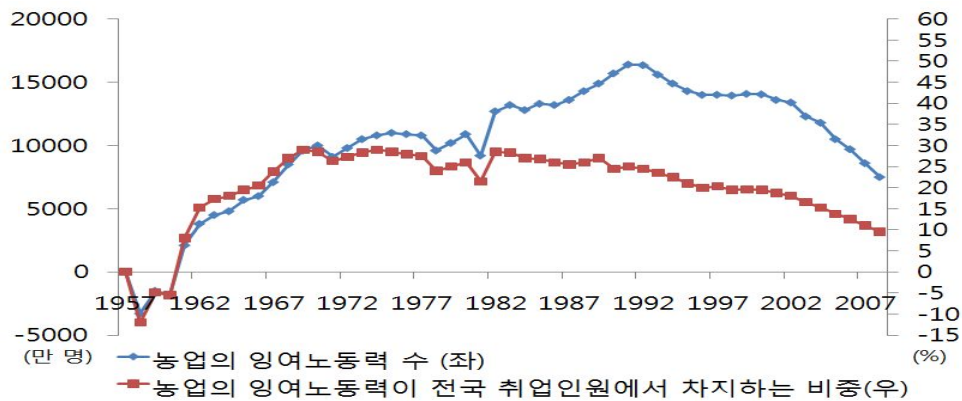
- 세계보건기구의 ‘2010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수명은 74세로 중·고소득 국가의 평

1)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모집에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2) 각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모집 인원 수 중 18~22세 연령자의 비율.

균수명(71세)보다 높지만 고소득 국가의 평균수명(80세)보다는 낮음(그림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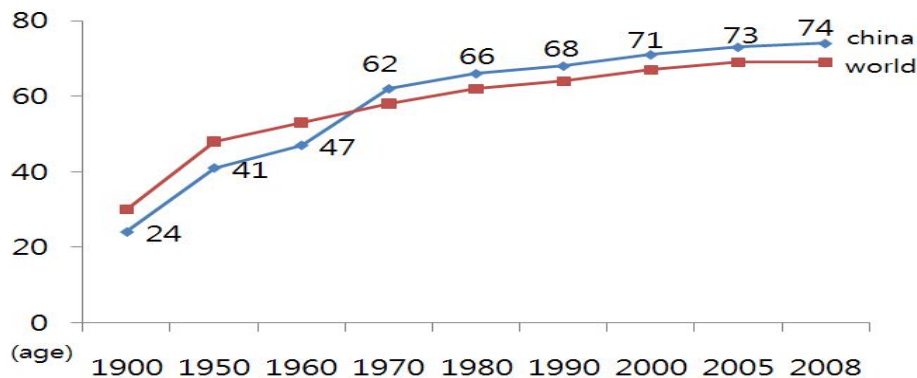
- 연령 단계별 사망률은 갓난아기 18%, 5세 이하 21%, 15~60세 113%로 중 고소득국가의 사망률<sup>3)</sup>보다는 낮음.

그림 5. 1957~2008년 농업의 잉여노동력 수 및 전국 취업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城镇化』 人口区域流动与剩余劳动力非农化转移』(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그림 6. 1900년 이래 중국 및 전 세계 평균수명 예측변화 추세도



자료: 『中国人力资源健康保障能力建设状况』 问题及对策』(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한편 현재 중국의 인력자원능력은 세계 34개 국가 중 24~26위 수준에 속하며 4개 지표 간에 차이가 존재함(표 1 참고).

3) 각 연령단계별 19%, 23%, 191%임.

- 국가의 인력자원능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지표체제’를 구축하여 요인·군집분석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sup>4)</sup>’의 인력자원능력 수준을 평가함<sup>5)</sup>

표 1. 2004~07년 중국 인력자원 능력지표의 점수 및 순위

지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A	1.075	2	1.707	1	1.584	1	1.461	1
B	-1.358	32	-1.460	33	-1.275	33	-1.049	32
C	0.318	12	0.284	12	0.434	11	0.452	11
D	-0.858	29	-0.844	29	-0.808	29	-0.782	30
총평가	-0.260	26	-0.293	25	-0.221	25	-0.167	24

주: \* 지표 A: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a1~a5), B: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b1~b6), C: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c1~c6), D: 인력자원의 건강보장능력(d1~d6).

자료: 『中国人力资源强国战略未来走势测算和展望』(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A)’은 방대한 규모의 노동력과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명확하게 우위에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며 노동비용 역시 상승할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은 약화될 것임.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B)’은 32~33위로 분포하며 이는 저소득 국가에서 공공교육 경비 투입비중이 낮은 현실적 상황과 시장의 수요와 단절된 인력자원 교육개발시스템 등 체제적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인력자원 교육개발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문이므로 투자와 제도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정체될 경우 중국의 인력자원 교육개발능력 발전이 염려스러움.
-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C)’은 11~12위로 분포하고 인구와 노동력의 도시이전은 상품과 기타 요소 시장의 형성 및 성장에 따라 추진되었음.
  - 그러나 정부기관, 국유기업·비영리사업기관단위, 중소형민영기업 간의 노동력 이동, 복리대우와 고용비용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인력자원 시장배치능력의 제고를 저해하고 있음.
- ‘인력자원의 건강보장능력’은 29~30위로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지만 인구수명 예측이 1900년 24세에서 2008년 74세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의 총체적 수준은 상승하는 추세임.

4) 34개국을 비교·참고 대상으로 선택하고 2004~07년 기간의 수치로 각국 인력자원능력지표를 비교·측정했으며 △ 25개의 OECD 국가 △ 9개의 저소득 국가가 포함됨(중국 포함).

5) 중국의 인력자원강국전략에 대한 미래 추세 측정 및 전망(中国人力资源强国战略未来走势测算和展望) -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조직의 관련 통계수치를 분석함.



## 2. 중국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장애요소

■ 장기적으로 중국은 일률적으로 시험에 초점을 맞춘 주입식 교육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sup>6)</sup>

■ 첫째, 국민교육 수요는 규모가 매우 크지만, 행정적 독점하에서 교육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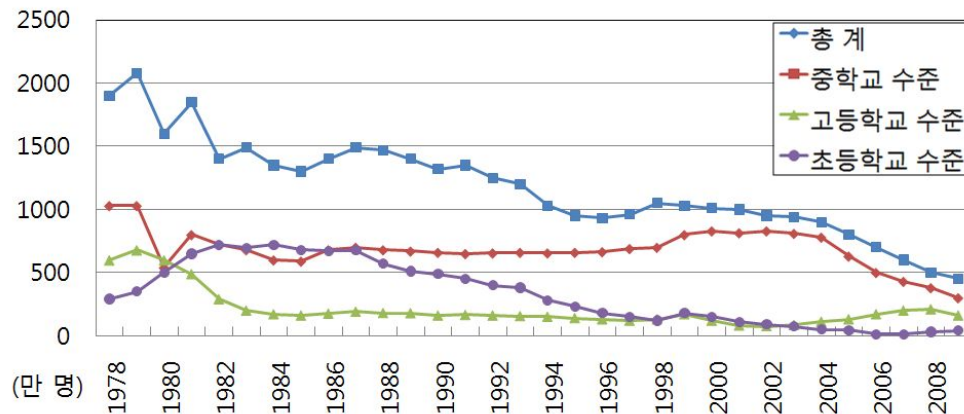
- 중국의 기초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제사회발전의 요구 및 국민교육에 대한 수요규모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취학연령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100%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취학연령 아동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약 100만~800만 명의 아동은 입학할 못하고 있음.
-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99.1%(2009)로 다시 상승하였지만, 매년 약 140만~700만 명은 진학할 수 없으며, 중학교 졸업생 중 약 600만~1000만 명도 진학을 할 수 없음.

■ 둘째, 교육공급구조의 모순이 뚜렷하고, 공급구조와 수요구조 간 연관성이 적으며, 사회경제와의 관련성 또한 매우 부족함.

-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의 중등교육 비율이 이미 60% 이상, 중고등교육은 80% 이상에 도달한 데 비해 중국의 중등교육 비율은 현저하게 낮음.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비율은 2000년 47.70%, 2005년 51.86%를 나타냄.
- 농촌의 교육은 탈농업적 교육이기 때문에 진학을 할 수 없는 많은 졸업생이 농업 관련 직업·기술 분야의 필수훈련을 받지 않아 귀향 후 농촌 지역사회의 생활 및 경제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이 장기간 정체되었고 새로이 증가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직업·기술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므로 '전문적 분업·많은 생산량'을 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움.
- 초등교육기관 학생의 최종 목표가 대부분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있지만 졸업생의 진학률은 매우 낮으며 1978~2009년 기간 중 직업,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약 2,000만 명 중 450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출함(그림 7 참고).

6) 应试教育四大危机: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最大困境(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그림 7. 직업·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수의 변화 추이



자료: 『应试教育四大危机: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最大困境』(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셋째, 정부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경비 투입이 어렵고, 저효율의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투자에 있어 교육처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급한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하기도 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게다가 정부의 한정된 교육경비가 국민의 소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의무교육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효율이 낮은 중고등 비(非)의무교육에 사용되고 있음.

■ 넷째, ‘사회역량의 학교 설립’ 7)이 아직 교육발전의 내적 동기 및 사회민주화의 요구와 연결되지 않았음.

- 중국정부는 다년간 정책적으로 사회역량의 학교 설립을 유도하였지만, 실제로 이는 몇몇 교육관리 당국의 교육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음.
- 결국 사회역량의 인력자원 교육개발에 대한 지지와 충분한 발전동력이 부족한 실정임.

■ 호구(戶口)제도로 인해 지역 간 인력자원의 이동, 노동시장의 일체화 등에 대해 저효율·불공평의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인력자원의 조직·부문·산업·지역 간 이동은 시장메커니즘의 자원배치를 위한 중요한

7) 기업사업조직(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 민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및 사업단위 성격의 각종 조직과 기구),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공민 개개인이 비국가적 재정교육경비를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조건이지만 이동이 쉽지 않음.

- 2010년 8월 충칭(重庆)에서는 ‘호적제도개혁·농촌주민 주소변경 실시방법의 전면적 발전’<sup>8)</sup>(이하 ‘호적제도개혁’)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충칭의 호구제도개혁은 두 단계로 △ 2010~11년 기간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공 및 새로운 등록자를 도시의 주민으로 하여 호적제도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 2012~20년은 체계적 제도를 통해 도시호구로의 전환을 완화하고자 함.

■ 의료시장은 기본적으로 독점의 국유제이며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부족함.

- 비록 의료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통제로 물가상승보다 지연되지만 1978~2007년 기간 중 ‘개인의 보건 지출이 총보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sup>9)</sup>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이며, 높은 의료보건비용을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돼 높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심각함.
- 의료보장의 ‘사후(事后) 경비 정산제’는 의사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며, 또 높은 비용·낮은 영향범위 등 결점이 점차 표출되고 있음.

### 3. 인력자원 강국의 전략과 전망

■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강국으로 전환은 21세기 초 중국의 경제굴기, 사회전환과 문화부흥의 실현을 의미하므로 전면적·장기적·전략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함.

- 현재 중국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한 인구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 역시 전략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sup>10)</sup>

■ 먼저 사람에게 투자하는 전면적인 발전이념을 확립하고 국민의 소양제고에 주력하여 인력자원개발 및 잠재적 우위를 경쟁우위로 하는 인력자원 강국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방침임.

- 기본적 발전방향은 △ 국민을 위한 발전 △ 국민에 의한 발전 △ 국민의 전면적인 발전이며, 인력자원 강국 전략은 모든 발전전략 중 제1의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

8) 统筹城乡户籍制度改革农村居民转户实施办法.

9) 1978년 20.4%에서 2001년 60.0%로 급증한 후 2007년은 45.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함.

10) △ 경제사회구조가 시장화 전환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며 △ 낮은 비용의 외연적 경제발전방식에서 고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전환 중이고 △ 사회경제구조 역시 불평등비(非)전면적인 소강사회에서 벗어나 중점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중시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자 함.

■ 중국의 인력자원 강국 건립은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지속발전전략의 관점을 견지

- 전략목표를 확정하는 데 단기적으로 이익만 중시하는 행위와 정책효과의 충동을 경계해야 함. 인력자원 건설은 우수한 정책지도자·행정의 추진으로 대규모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역사적 과정에 따라 추진되는 장기적 진화과정임.
- 중점전략은 △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 △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 △ 인력자원의 사회보장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표 2. 중국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중점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	경제적 지지능력 건설의 중점은 시장화, 공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맞추어 충분하게 '인구보너스'를 이용하고 '인구부채'를 최대한 피하여 발전방식을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추진하고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	교육개발능력 건설의 중점은 교육제도의 창조를 근본적인 동력으로 하여 폐쇄적이고 부패한 시험위주의 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교육의 시장화와 사회적 개방수준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교육체제를 구축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	시장배치능력 건설의 중점은 시장화 개혁의 선도와 동력으로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계획체제구조를 타파하고 인구의 도시화와 잉여노동력의 비(非)농업화 부문으로의 이동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취업기회의 균등화를 이룬 노동시장을 건설
인력자원의 사회보장능력	사회보장능력 건설의 중점은 사람을 본으로 건강에 투자하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개방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공공보건체제 건설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수준광범위하고효율'의 원칙에 따라 노년의 부양질병 및 상해 치료와 취업지원의 새로운 인력자원 사회보장체제를 건립

- 전략 순서 안배는 순차적 절차를 주의하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산부조우(三步走) 전략에 따라 향후 40년간 중국의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전략적 절차를 확정해야 함.

■ 중국의 인력자원 강국 건설은 제도적 창조가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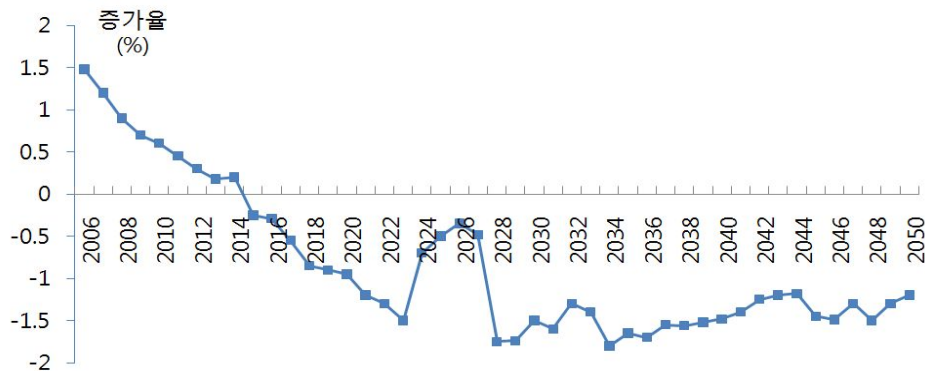
-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의 발전과정을 회고하면 중국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서 침착하게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시장화제도를 창조하였음.
- 그러나 각 영역을 비교하면 창조적 수준이 불균형적임. 가령 농업·공업·상업·무역 등의 생산성 산업은 시장화개혁 방면 중 창조·개혁의 추세와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몇몇 교육과 의료 등 인력자원 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미세하여 시장화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제도적인 장애가 되기도 함.

- 향후 인력자원 건설에 있어 교육·의료 등의 영역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임.

■ 인력자원 강국의 건설을 위해 인구 변화요인 중 하나로 최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그림 8 참고).

- 2009년 국가통계국의 농민공측정·조사보고<sup>11)</sup>에 따른 전국의 총농민공 수는 2억 2,978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외지농민공(外出农民工)<sup>12)</sup> 수는 1억 4,533만 명에 달함.
- 최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민공황(民工荒)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급여수준도 상승하고 있어 더 이상 노동력이 무한히 공급될 수 없음을 의미함.
- 이는 농촌의 잉여노동력 규모가 부단히 감소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고 도시경제 발전에 필요한 많은 저렴한 비용의 노동력 제공이 어려움을 의미함.

그림 8. 2006~50년 중국 노동연령 인구증가율 변화추세<sup>13)</sup>



자료: 『中国人力资源健康保障能力建设状况』问题及对策(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 현재 중국의 인구연령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을 나타내며 단기적으로는 인구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가속될 것임.

- 중국의 고령화는 동일한 발전단계의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2008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94%에 달하였음.

11) 2009年农民工检测调查报告.

12) 연도별 농민공 수에는 외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외지농민공(外出农民工)과 현지의 비농업부문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현지농민공(本地农民工)이 포함됨.


13) 2005년 1%의 인구조사로 중국의 미래인구 연령구조 변화추세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였음.

○ 고령화는 △ 경제발전속도와 인력자원 강국 설립에 부(-)의 효과를 줄 것이며 △ 농촌의 노동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노동연령 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 규모 감소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인력자원의 소양제고 여지를 축소시킴.

■ 향후 40년간 중국 인력자원 강국 전략의 추세를 전망하면 인구변화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따라 상대적 우위는 점차 상대적 열위로 전환될 것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임.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과 건강보장능력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전이 지체될 것임.

■ 따라서 인력자원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을 세워야 함.

- 인력자원의 수준을 높여 △ 2020년까지 저개발국가 중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 2030년까지 중진국 대열진입 및 중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며 △ 2040년까지 선진국 대열진입 및 최종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평균수준 도달과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함. 

#### <참고자료>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三个战略要点』(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应试教育四大危机: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的最大困境』(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城镇化 人口区域流动与剩余劳动力非农化转移』(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户籍制度约束 劳动力市场分割与人力资源配置低效率』(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中国人力资源健康保障能力建设状况 问题及对策』(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中国人力资源强国建设应关注人口变化因素』(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中国人力资源强国战略未来走势测算和展望』(2010年第62期), 『经济研究参考』.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이일남 (boys8man@hotmail.com)